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경술국치의 현장, 남산 통감관저터에
이 땅의 아픈 역사를 새기는
평화와 정의의 터를 조성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최영희 (탁틴내일 이사장)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차경애 (한국YWCA연합 회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카페 cafe.daum.net/peace-memory

이메일 peace-memory@naver.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peace-memory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20 이강가1층

전화 02-324-0238 팩스 02-365-4017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002-8659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억의 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건립추진위원회

우리은행 1005-002-8659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억의 터)

우리는 기억의 터를 만드신 디딤돌,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름 _____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부 ☐ 개인정보 취급 동의 ☐

연락처 _____

주소 (영수증 발행 시 기입) _____

기부금액 _____ 원

주민번호 (영수증 발행 시 기입) _____ - _____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002-865914 정대협(기억의 터)

아픈 역사를 딛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가슴아픈 식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

남산공원 통감관저터

조선통감부는 일제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한국을 완전히 병탄할 목적으로 남산자락에 설치한 총독부의 전신이다.

1910년 8월 22일서 이완용과 데라우찌 통감은 남산의 통감관저에서 한일강제병합을 체결했다.

그리고 8월 29일 일왕과 순종의 조서가 공포됨으로써 조선왕조 519년, 대한제국 14년 만에 조선은 망하고 만다.

지금도 통감관저터에는 당시의 치욕의 역사를 지켜본 400년이 넘는 두 그루의 고목이 자리를 지키고있다.

또한 2015년에는 일본 공사였던 히야시 곤스케의 동상 잔해를 이용해 <거꾸로 세운 동상>이 세워져, 일제가 남긴 오욕의 세월을 기억하는 표석이 되고 있다.

